

〈추진부서〉 경기도 의왕시 교통행정과(031-345-3313)

장기 미사용 부지,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!
 〈의왕시-LH협업,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한 해결〉

• 개선배경

- 의왕포일인텔리전트 입주기업들의 주차공간 절대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 발생과 주차난으로 IT개발 인력 등 기업의 고급인력 수급이 어려워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
- 2012년 택지개발 준공 이후 학교용지가 미매각 부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, 민원 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토지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

▶ 오랫동안 방치된 학교용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건의

• 개선내용

개 선 전	개 선 후
-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목적(학교용지) 외 사용 불가 - 또한, 주민들의 반대로 용도 변경 불가	- 유연한 법 적용(공익을 위한 목적사용)으로 용도 변경 없이 임시주차장 조성 및 기업 주차난 해소

• 추진과정

- LH공사(학교용지)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협의: 2019. 5~7월
- 기업체의 주차장 이용 등 의견 수렴: 2019. 7. 11.~7. 22.
- LH공사(학교용지) 부지 무상사용 MOU 체결: 2019. 11. 6.
 - ※ 의왕시: 공용주차장 사용(6,500㎡) 등, LH공사: 재산세 감면 등
- 주차장 조성 반대 다수민원 접수(35건)로 주민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설명 설득: 2019. 11월
 - ※ 출입구 변경, 안전관리,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, 주민편의시설 요구 등
- 주차장 조성 공사(5,500㎡, 136면): 2019. 11. 8.~2020. 1. 30.
- 주차장 운영 개시(136대): 2020. 3. 16.

• 개선 효과

-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일부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
- 장기 방치된 유휴지의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지 주변 불법 주차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권 조성
-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기업민원 조기 해소 및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

• 언론 보도

의왕시-LH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

포일2지구 주차난 해소 기대
부지면적 430㎡, 120㎡ 규모

의왕시와 LH는 7일 양측 간 체결한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양측이 합의한 협약에 따라 학교용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협약에 따라 학교용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협약에 따라 학교용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.

경기신문

2019년 11월 07일 (목)
수도권 09면

의왕시와 LH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한 뒤 협력을 들여보내고 있다. /의왕시 제공

의왕 포일2지구 만성 주차난 다소 해소 기대

사·L·H, 학교용지 주차장 활용
의왕시에서 시립형 전신센터 등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주차난을 겪어오고 있는 포일2지구 지역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.

• 관련 사진



<정비 이전>



<주차장 정비 후>